

원 저

## 약물 음독과 정신과 과거력의 연관성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구미병원 응급의학과<sup>1</sup>

김현중 · 김혜미 · 김호중 · 조영순 · 이명갑<sup>1</sup> · 전덕호<sup>1</sup> · 고찬영

### Association of Prescribed Drug intoxication and Neuropsychiatric history

Kim Hyeon Jung, M.D., Kim Hye Mi, M.D., Kim Ho Jung, M.D., Cho Young Soon, M.D.,  
Lee Myung Gab, M.D.<sup>1</sup>, Jun Duck Ho, M.D.<sup>1</sup>, Go Chan Young, M.D.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Korea,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Gumi Hospital, Korea<sup>1</sup>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with a neuropsychiatric history and features of their suicide attempt, in order to analyze the risk associated with psychiatrist prescribed drugs

**Methods:** W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cases of intentional overdose drug ingestion in patients greater than 14 years of age who visited OO emergency medical center between January 1, 2008 and July 31, 2010. We evaluated patient medical records to ascertain their age, sex, neuropsychiatric history, and components of ingested intoxicant. Information regarding any suicide reattempt was obtained after discharge through follow up telephone survey. SPSS version 13.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Fisher's exact test was performed with  $p < 0.05$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Ninety-six of 209 patients (46%) had a past history of psychological problems. Among those 96 patients with a history of psychological problems, 46(48%) used an overdose of the medicine prescribed by their psychologist in order to attempt suicide. However, for patients without a history of psychological problems, intoxication by neuropsychiatric drugs was insignificant. Neuropsychiatric patients required greater follow up care after discharge and exhibited significantly more suicide reattempts.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patients sometimes use the medicine prescribed by their psychologist to attempt suicide. Therefore, an exhaustive plan to control the medicines prescribed to psychiatric patients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Neuropsychiatric history, Suicide, Drug intoxication, Prescribed medicine

## 서 론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가장 큰 문제

투고일: 2011년 9월 8일

게재승인일: 2011년 10월 27일

책임저자: 김 호 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번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Tel: 032) 621-5119, Fax: 032) 621-6560  
E-mail: lovelydr@schmc.ac.kr

들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일수록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나 음악을 즐기는 방법 이외에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신체에 해를 주어 약물사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들 중 많은 수는 의존성을 띄게 되고 약물의 용량이 조절되지 않거나 심리적인 다른 증상 또는 다른 스트레스가 동반될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병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병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물리적인 자살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sup>1)</sup>. 또한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이 발병된 경우 병원을 통해 받은 약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약물 중독 환자들 대부분은 불안정한 심리상태, 과도한 알코올섭취상태 등과 같이 본인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시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정신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감정조절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적인 약물 음독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즉, 정신과 과거력은 약물중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재시도 및 높은 치사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과 과거력 여부가 약물중독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임상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저자들은 일개병원에 일정기간 내 내원한 약물중독환자들을 조사하여 정신과 과거력 여부에 따른 특성들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대상과 방법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약물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인 환자 정보는 본원의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하였고, 의무기록상 진단명에 약물 중독(drug intoxication)이 기재되어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중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지만 퇴원시까지 약물 음독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치료도중 혹은 퇴원 후에 환자가 사망하여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도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정신과 과거력 유무에 따라 정신과 과거력 양성군과 음성군으로 나누었다. 조사내용은 이들의 성별, 나이, 기존의 정신과 과거력 여부 등과 같은 기본정보와 재시도 여부 및 횟수, 입원 및 정신과 치료 등에 관한 결과확인, 그리고 사용한 약물의 특성 등이다. 재시도 및 결과확인을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결과는 수와 %로 표시하였고, 각 군 간의 비교는 Student's T- test 와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였다. 통계는 SPSS 15.0 (Chicago, IC, USA)을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 결 과

대상기간 내에 약물중독으로 내원한 전체 환자는 322명이었으며 이중 입원 후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10명과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103을 제외한 209명(남자 51명, 평균연령 39.72세)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치료도중 사망한 10명의 환자들은 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신과 과거력이 있는 군에서는 1명의 환자만 치료도중 사망하였고, 약물의 종류도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이었다. 반면에 정신과 과거력이 없는 환자군에서 치료도중 사망한 환자는 9명이었으며, 그라목손 등의 농약을 음독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상 40세 이하 군이 42%로 가장 많았고 이후 60세 이하연령까지가 전체의 71%를 차지하였다. 96명(46%)이 과거 정신과질환을 진단 받았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던 환자는 36명(17%)였다(Table 1).

환자들이 음독한 약물은 정신과 과거력을 가진 환자군에서는 처방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정신과 과거력을 가지지 않은 환자군에서의 처방약이 차지하는 비중인 10%에 비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정신과 과거력이 없는 군에서 정신과 약을 음독하는 경우는 가족이 정신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209)

Sex	Male	51 (24%)
	Female	158 (76%)
Age	less than 20	33 (16%)
	21~40 yrs	88 (42%)
	41~60 yrs	60 (29%)
	more than 61	28 (13%)
Psychologic Past History	YES	96 (46%)
	NO	113 (54%)
Previous suicide attempt History	Attempted	36 (17%)
	Non	173 (83%)

Data are expressed as n (%).

**Table 2.** Association of Neuropsychiatric History and Suicide Drugs.

		NP (n=96)	Non-NP (n=113)	P-value
Suicide Drug	NP drug	46 (48%)*	11 (10%)	0.024
	Hypnotics	23 (24%)	26 (23%)	0.621
	Other	27 (28%)	76 (67%)	0.155

NP: Neuropsychiatric

Others include chemicals other than NP drug and hypnotics.

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경우가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구입이 용이한 수면제 및 수면 유도제는 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정신과 과거력이 없는 군에서는 소염진통제, 살충제, 락스, 농약 등 여러 종류의 음독 물질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Table 2).

본원에서 퇴원 이후 약물 음독의 재시도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3명의 환자가 답변을 거부하였고, 정신과 과거력이 있는 군에서는 11명(12%), 정신과 과거력이 없는 군에서는 3명 (3%)의 환자들이 재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치료 후 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는 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정신과 과거력이 있는 군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 군이 52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었고, 과거력이 없는 군에서는 88%로 대부분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Table 4).

내원 후 약물 음독을 진단 받은 후 거취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신과 과거력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각각의 항목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Table 5).

## 고찰

본 연구에서, 정신과 과거력을 가진 환자가 다량의 약물을 충동적으로 음독하는 경우 평소에 처방받던 정신과 처방 약물이 쉽게 이용되어 질 가능성이 높았고, 재시도 역시 정신과 과거력을 가진 환자에서 빈도가 높았다. 그 외에도 한번의 약물 음독으로는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음독환자의 거취결정에는 정신과 과거력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도 통계청의 주요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망원인에서 인구 10만명 당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의 13.5명에서 2009년 31.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자살 시도는 정신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서는 1%이지만, 감정부전장애환자에서는 17%, 주요우울증환자의 18%, 조울증환자의 24%에서 자살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자의 60%가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살 희생자의 90% 이상이 진단 가능한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9)</sup>.

자살의 방법으로서, 총기의 사용이 자유로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총기에 의한 자살률이 높아 약물에 의한 자살 시도가 약 16.6 %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비해,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음독을 통한 자살시도가 71.7~94%정도로 높게 나타났다<sup>10-12)</sup>. 응급실에 내원하는 약물중독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본원의 경우 2007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 약물중독 환자는 63~97%이상이 약물복용의 주목적이 자살 목적이었고 현재까지 이러한 자살을 시도한 환자는 재시도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2-14)</sup>.

본 연구에서 정신과 과거력이 있으면서 약물을 통해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은 본인이 처방 받은 약물을 다시 자살 시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번 연구 결

**Table 3.** Association of Neuropsychiatric History and Re-attempt of Suicide

		NP (n=93*)	Non-NP (n=113)	P-value
Re-attempt	Yes	11 (12%)	3 ( 3%)	0.215
	No	82 (88%)	110 (97%)	

\* Three Patients were excluded because they refused to answer about re-attempt.

**Table 4.** Association of Neuropsychiatric History and follow up

		NP (n=96)	Non-NP (n=113)	P-value
NP follow up	Yes	44 (46%)	14 (12%)	0.031
	No	52 (54%)	99 (88%)*	

\* P<0.05

**Table 5.** Association of Neuropsychiatric History and Disposition

		NP (n=96)	Non-NP (n=113)	P-value
Disposition	Admission	50 (52%)	62 (55%)	0.755
	Self-DC	43 (45%)	47 (42%)	0.842
	Transfer	3 ( 3%)	4 ( 3%)	0.981

DC: Discharge

과에 나타나 듯 치사율은 높지 않았지만 외국에 비해 치료 목적의 약물이 다시 악용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살 시도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약물에 의한 치료와 병행하여 상담이나 분석과 같은 다양한 치료방법이 동원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환자 스스로가 정신과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경험할 길이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만을 원하는 성향이 있고 의료진의 치료방향도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어서, 환자의 각각의 상황에 따른 감정변화와 충동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사의 처방 약물이 자살 시도의 도구로서 전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퇴원 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에 관한 부분에서 정신과 과거력을 진단 받은 적 없던 환자군보다 정신과 과거력을 가진 환자군에서 더 많은 비율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가 가지는 의미가 많이 과장, 왜곡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신과 진료실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살 시도', '약물 음독'과 같은 진단명으로는 국가의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보험금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져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신과적 병력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을 알아내기 힘든 것과 복용하는 약의 종류나 성분을 통한 진단명의 확정이 어려운 점이였다. 결과에서 실제적으로 정신과 처방약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독한 약물 중 의무기록상 multi-drug으로 기재되어 정신과 처방약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결과를 좀 더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없었다. 또한, 정보 조사 과정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용히 면담을 해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전화상으로 전달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약물을 음독하는 환자는 이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다시 음독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이 다시 음독을 재시도할 경우에 의사의 처방약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살을 목적으로 약물을 음독하는 환자에게는, 중독에 관한 응급실 내에서의 체계적인 초기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신과적 협진을 통해 정신과 처방 약물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치료 약물에 의한 재시도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Yim HW, Jeong HS, Jung YE, Wang HR, Kim SY. Management of depression and suicide. J Korean Med Assoc 2011;54:275-83.
2. Korean Statistics Data 2009. Cause of Death. Available at <http://www.index.go.kr>
3. Barraclough B, Bunch J, Nelson B, Sainsbury P. A hundred cases of suicide: clinical aspects. Br J Psychiatry 1974;125:355-73.
4. Dorpat TL, Ripley HS. A study of suicide in the Seattle area. Compr Psychiatry 1960;1:349-59.
5. Rich CL, Fowler RC, Fogarty LA, Young D. San Diego Suicide Study. III. Relationships between diagnoses and stressors. Arch Gen Psychiatry 1988;45:589-92.
6. Robins E, Murphy GE, Wilkinson RH Jr, Gassner S, Kayes J. Some clinical considerations in the prevention of suicide based on a study of 134 successful suicides. Am J Public Health Nations Health 1959;49:888-99.
7. Shaffer D, Gould MS, Fisher P, Trautman P, Moreau D, Kleinman M, Flory M. Psychiatric diagnosis i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rch Gen Psychiatry 1996;53:339-48.
8. Drake RE, Bartels SJ, Torrey WC. Suicide in schizophrenia: clinical approaches. In: Williams R, Dalby JT, editors. Depression in schizophrenics. New York: Plenum Press; 1989. p. 171-86.
9. Brent DA, Johnson BA, Perper J, Connolly J, Bridge J, Bartle S, Rather 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traits, impulsive violence, and completed suicide in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4;33:1080-6.
10. Michael PR, Garen JW. The Epidemiology of Firearm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2002; 79:39-48.
11. Choi DC, Kim HR, Kim CH, Park SH, Kim SH, Cho YR, et 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icide attempters visiting emergency room. Korean J Psychopathology 2000;9:36-49.
12. Kang JH, Jin YH, Lee JB, Lee HN, A clinical analysis of acute drug intoxication in emergency department setting. J Korean Soc Emerg Med 1999;10:431-40.
13. Hwang KM, Lee YC, Lee ST, Lee SR, Rhee YK, Clinical studies on acute drug intoxication. J Korean Soc Emerg Med 1993;4:43-52.
14. Sorodoc V, Jaba IM, Lionte C, Mungiu OC, Sorodoc L. Epidemiology of acute drug poisoning in tertiary center from Iasi County, Romania. Hum Exp Toxicol 2011 Mar 22. published on online ahead of print. Available at <http://het.sagepub.com/content/early/2011/03/22/0960327111403172>